

환한 밤

밤이면 가로등 불이 켜졌다. 나는 2층 야자실 가장 어두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구석이라 형광등 불빛이 잘 닿지 않을 뿐더러 창문 옆이라 나무 그림자가 언제나 시커멓게 드리워져 있었다. 가로등은 나무 옆에 나란히 서있었다. 가로등이 나무 옆에 세워진 것인지, 나무가 가로등 옆에 심긴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주홍빛으로 물든 잎사귀를 멀거니 바라보며 조만간 둘 중 하나가 뽑힐 거라 짐작할 뿐이었다.

책상에 엎드려 꾸벅 졸고 있다가도 등 뒤의 환한 주홍색 불빛에 정신이 번쩍 들곤 했다. 밤이라고 하면 흔히들 짙은 어둠을 떠올리곤 하지만 나에게 밤은 주홍색 가로등 불빛이었다. 가로등 불빛 속에서 나는 그렇게 저녁잠에서 깨, 밤의 시작을 온 몸으로 맞이하곤 했다.

잠시 영어 문제집을 뒤적이는데 누군가 탁 하고 창문을 두드렸다. 뒤를 돌아 시커먼 나방 떼가 보였다. 서울의 나방들과 달랐다. 강원도 산에서 나고 자란 드세고 묵직한 녀석들이었다. 무리 속에서 퍼덕거리던 한 마리가 튕겨 나와 유리창에 부딪히며 떨어졌다. 창문에 나방의 잿빛 비늘가루가 묻어났다. 주변에 앉아있던 여자애들이 나방 떼를 가리키며 눈살을 찌푸렸다. 두 자리쯤 떨어져 있는 재희와 눈이 마주쳤다. 재희는 내가 전학 오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을 섞은 아이였다. 나는 재희의 눈길을 피해 다시 영어 문제집으로 돌아와 내일 있을 영어 수행평가 문제를 천천히 곱씹었다.

십 분도 채 안되어 영어 문제집을 도로 덮었다. 영어 문장들이 도통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문장들을 하나씩 따라 읽 때마다 어젯밤 엄마의 말이 불쑥 끼어들었다. 씻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거실 한가운데 서있던 엄마가 나를 불러 세웠다.

“급식 혼자 먹니?”

등골이 서늘해지다가 천천히 숨이 죄어들었다. 나는 뒤돌지 못했다. 엄마와의 대화란 언제나 말다툼이었다. 나에게 엄마의 말은 충고가 아닌 잔소리였고, 엄마에게 나의 말은 대답이 아닌 말대꾸였다. 한참 잔소리와 말대꾸가 오가다 끝내 내가 침묵을 택하는 것으로 대화는 종결되곤 했다.

급식을 혼자 먹느냐는 엄마의 물음은 대답하기 어려웠다. 나는 침묵했다. 대답들을 미루고 침묵을 택한 것이 아니었다. 대답들을 읽자 남은 게 침묵뿐이었다. 엄마에게 등을 돌린 채 멀거니 서서 나는 한참동안 대답을 찾아 머릿속을 헤맸지만 끝내 아무런 문장도 만들어 내지 못했다.

야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집과 학교를 두고 무엇이 더 싫은지 무게를 달았다. 오른 발짝을 뗄 때면 집이 더 싫었고 왼 발짝을 뗄 때면 학교가 더 싫었다. 최대한 느릿느릿 걸었지만 어느새 읍내를 지나 강다리를 건너 할머니의 집이 있는 주택가로 접어들고 있었다.

내게 할머니의 집은 그저 아빠가 나고 자란 고향으로, 설이나 추석에 가끔 들리는 곳이었다. 방은 세 개나 있었지만 침대도 하나 넣을 수 없을 정도로 좁았고, 벽지에는 곰팡이들이 다닥다닥 자라나고 있었다. 또한 여름에는 들끓는 날벌레들을 잡느라, 겨울에는 지붕 가득 쌓인 눈을 치우느라 애를 먹어야 했다. 그러다보니 명절에 들려도 할머니 집에서 자고 가는 일이 드물었다. 강원도지만 서울과 가까워 밤늦게라도 부모님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리

에서 일어났다. 나 역시 자꾸만 자고 가라고 내 손목을 붙잡는 할머니의 손길이 불편했다.

서울로 돌아가는 새벽, 아빠는 운전을 하며 조수석에 앉은 엄마에게 할머니 집에 대해 이따금씩 얘기했다. 그때마다 나는 뒷좌석에서 옆으로 쓰러져 누워, 눈을 감고 둘의 대화를 가만히 귀담아들었다. 할머니가 살고 있는 주택가가 재개발에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얘기였다. 아빠는 아는 친구를 통해 얻은 귀한 정보라며 힘을 주어 말했다. 근래 오른 자신의 고향 땅값에 대해서도, 서울과 고향을 잇는 새 고속도로 공사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작년 추석, 여느 때와 같이 자정을 넘겨 서울로 돌아가고 있었다. 아빠가 다시 할머니 집에 대해 얘기했다. 재개발 얘기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돌아누우려는데 어쩐지 얘기가 이상하게 흘러갔다. 아빠는 무슨 얘기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할머니네 집 재개발이 유언비어였다는 것부터 밝혔다. 몇 번 숨을 고르더니 이번에는 서울에 있는 우리 집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벌였는데 그게 잘 안된 모양이었다. 빚이 청산되는 동안만, 당분간만 할머니 집에 가있어야 할 것 같다고 아빠가 덧붙였다. 엄마가 아무런 대답 없이 숨을 몰아쉬더니 난데없이 아빠의 목살을 잡았다. 그 바람에 하마터면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트럭과 충돌할 뻔했다. 아빠는 갓길에 차를 세웠다. 아빠와 엄마는 서로를 향해 언성을 높였다. 나는 가쁜 숨을 고르며 지그시 귀를 막았다. 둘의 목소리가 물에 잠긴 듯 먹먹하게 귓전을 때렸다.

할머니의 집은 좁은 골목을 헤쳐가야 했다. 이삿날, 가족들은 차에서 내려 저마다 짐을 이고 좁은 골목을 열 번씩은 오갔다. 할머니의 집 대문은 페인트칠이 벗겨져 군데군데가 시커멓게 녹슨 파란색 철문이었다. 문을 여닫을 때마다 끼익 하는 녹슨 소리가 났는데 나에겐 꼭 비명처럼 들렸다.

*

여고는 근처 같은 이름의 여중에 다니던 애들이 거의 그대로 올라오는 식이었다. 상고나 농고로 빠져나간 일부 아이들의 자리를 더 먼 시골 중학교를 졸업한 애들이 채웠다. 다들 이미 서로를 잘 알고 있었다. 입학식이 열리는 강당에서 나는 내내 혼자 서있었다. 낮을 가리기도 했고 말이 없는 성격이기도 했다. 교실에 들어가서도 줄곧 혼자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재회를 처음 만난 건 음악실에서였다. 재회는 내 오른쪽에 앉았다. 앞줄에 앉은 아이와도, 뒷줄에 앉은 아이와도 친했다. 몇몇 아이들이 피아노에 달라붙어 건반을 두드려댔다. 천천히 음악책을 넘겨보고 있는데 시끄러운 피아노 연주 소리를 헤집고 재희가 내게 큰 소리로 물었다.

“근데 너는 어디 중학교야?”

나는 머뭇거리다가 서울에서 왔다고 대답했다. 서울에서 왔다는 말에, 앞줄에 앉은 아이도 나를 돌아다보았다. 주변에 앉은 아이들이 저마다 서울에 대해 한 마디씩 물었다. 서울 어디 살았는지, 서울 공학은 어떤지, 서울 남자애들은 어땠는지, 예쁜 여자애들은 많았는지, 서울 날라리들은 어땠는지, 서울에서는 주말에 뭐하고 노는지, 그래서 서울 애들은 공부를 잘하는지 등 끊임없이 질문들이 쏟아졌다.

재희가 휴대폰 번호를 교환하자고 했다. 나는 망설였다. 요금이 몇 달 쯤 밀려, 전화와 문자가 정지된 상태였다. 엄마는 내 휴대폰 요금보다 전기세와 가스비가 먼저라고 했다. 나는 재희에게 끝 번호 하나를 다르게 알려주었다. 휴대전화요금을 내고 난 뒤 정지가 풀리면, 그때 다시 제대로 번호를 알려주면 된다고 생각했다.

사흘동안 나는 재희를 비롯해 재희의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급식실에서도 애들은

내게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냈다. 나는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도 모르게 밥을 먹었다. 애들 질문에 호응해주느라 안 가본 곳도 가봤다고 하고, 안 해본 것도 그냥 해봤다면서 조금씩 말을 지어냈다. 북촌도 가본 적 없고 홍대도 가본 적 없지만, 홍대의 버스킹 공연도 좋았지만 북촌의 조용한 풍경이 더 마음에 들었다고 둘러대기도 했다. 그때마다 재희는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뵈히 바라봤고 나는 나도 모르게 그런 재희의 얼굴을 슬쩍 피해버렸다.

셋째 날 점심시간이었다. 재희가 내 자리로 다가오더니 매점에 가자고 했다.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했다. 매점에서 재희는 크런키바를 골랐다. 나는 딱히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지 않았지만 잠깐 고민하다 멜론 맛 아이스크림을 골랐다. 재희가 크런키바를 입에 물더니 매점 앞 벤치에 앉았다. 재희가 옆에 앉으라며 손짓했다. 재희와 단 둘이 있는 것은 처음이었다. 아이스크림을 손에 쥐고 나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아직 꽤 쌀쌀했다. 교실로 돌아가고 싶었다. 재희와 단 둘이 있고 싶지 않았다. 재희가 크런키바를 한 입 베어 물고는 대뜸 내게 물었다.

“근데 여긴 왜 왔어?”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응?” 하고 되물었다. 재희는 집요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어찌다가 왔어? 잠시 머뭇거리다가 아버지가 고향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대충 얼버무렸다. 내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재희가 다시 질문을 몰아붙였다. 그래? 무슨 사업? 거기까진 나도 잘 몰라. 읍내 산됐나? 아니, 다리 건너서 주택가 쪽. 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다. 웬 주택가? 그 판잣집 많은 곳? 재희의 질문에 점점 숨이 막혔다. 손에 든 멜론 맛 아이스크림이 무릎 위로 푹푹 흘러내렸다. 무릎에 묻은 아이스크림을 손으로 급하게 닦아내는데 재희가 다시 물었다. 근데 너 말이야, 교복 물려 받았니? 재희가 집게손가락으로 내 조끼를 추켜올렸다. 사실이였다. 아빠 친구 딸이 입던 교복을 물려 받은 거였다. 그러다보니 요즘 애들이 입는 브랜드 교복과 디자인이 조금 달랐다. 이 문제로 나는 엄마와 툭 하면 싸웠다. 엄마는 내게 철이 없다고 했다. 나는 조금 철이 없더라도, 그래도 새 교복을 입고 싶었다. 뭐라고 대답할까 곰곰이 궁리하다, 아버지 친구가 맞춤 교복점을 운영하는데 거기서 산 교복이라고, 그래서 디자인이 좀 다른 거라고 구구절절 설명했다. 잠깐 사이 아이스크림이 교복 치마 위로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는 아이스크림을 옆으로 치웠다. 바닥으로 푹푹 떨어지는 녹색 크림 덩어리를 멍하니 내려다봤다. 재희는 팔짱을 끼더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근데 너 내 문자 썹었더라?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자 같은 거 안 왔는데? 하고 되물었다. 너 번호 이거 아냐? 재희는 내가 잘못 알려준 전화번호를 따박따박 댔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끝 번호가 1이 아니라 2라고 말했다. 재희는 즉시 내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점점 숨이 차올랐다. 당연히 내 휴대폰은 울리지 않았다. 재희가 고개를 가웃했다. 너 휴대폰 정지되었다는데? 거기서부터 나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손에 든 아이스크림을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재희가 크런키바를 훑으며, 나를 위아래로 훑었다.

“너 왜 자꾸 거짓말 해?”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아이스크림이 무릎을 타고 흘러 양말까지 적셨다.

“나도 너랑 같은 동네 살아. 가난한 게 뭐 어때? 나도 예전에 요금 못 내서 정지 먹은 적 있어. 이게 뭐 별 거라고.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되잖아?”

나는 재희의 말을 뒤로 하고 화장실을 향해 뛰어갔다.

“왜 자꾸 거짓말 하는데?”

재희가 뒤에서 소리쳤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화장실에서 교복 치마가 흠뻑 다 젖도록 몸에 묻은 아이스크림을 씻어냈다. 왜 자꾸 거짓말 하는데? 재희의 마지막 말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거짓말을 들킬까봐 불안에 떠느니, 차라리 혼자 지내는 쪽이 맘 편했다.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떠드는 쉬는 시간이면 나는 조용히 서랍에서 책을 꺼내 읽었다. 재희와 맞닥뜨려야 하는 음악시간에는 생리통 타트를 하며 몰래 보건실에 누워있기도 했다. 가장 걸리는 건 급식 시간이었다. 재희네 무리가 나를 부르면 어찌나 했는데, 재희가 애들에게 뭐라고 얘길 했는지, 아무도 그 이후로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처음 한동안 그 애들에게 어쩌면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겠다 싶어, 재희네 무리를 잠깐 피해 다녔다. 하지만 그건 내 과대망상이었다. 그 애들은 나에게 일말의 관심도 없었다.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며 놀기 바빴다. 교실에서도 이따금 나와 눈이 마주치는 건 재희뿐이었다. 나는 재희가 아직도 가끔 나를 슬쩍 쳐다보는 것이 소름끼쳤다.

혼자 밥을 먹는다는 건 쉽지 않았다. 처음 며칠은 굶었다. 매점에서 빵으로 때우기도 했다. 언제까지나 굶을 순 없었다. 학교 애들이 급식을 다 먹을 즈음에야 느지막이 급식실을 찾아가곤 했다. 그것도 잠시, 곧 익숙해져, 나는 어느 샌가 아무렇지 않게 반 애들에 끼어 급식실로 몰려갔다가, 이내 혼자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다. 아무렇지 않게 내 옆에 앉아 밥을 먹는 애들도 있었지만 이따금 내 옆을 피해, 한 칸 자리를 비우고 앉는 애들도 있었다. 항상 음식을 너무 오래 씹는다고 엄마에게 잔소리를 들곤 했던 내가, 그렇게 조금씩 밥을 빨리 먹는 법을 터득해나갔다.

*

내가 급식을 혼자 먹는다는 것을 엄마가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의문이 끊이질 않았다. 답임일까? 답임이 만약 내가 혼자 다니는 것을 문제 삼았다면 나와 먼저 상담을 하지 않았을까. 게다가 답임은 내가 혼자 지내는 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내가 딱히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반에서 버릇없이 굴며 사고를 치는 문제아들은 많았다. 답임 눈에 나는 그저 혼자 다니는 조용한 애 정도에 불과했다.

골목길에 다다르자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드문드문 서있는 골목길 가로등 불빛을 마주칠 때마다 내 시커먼 그림자가 앞을 가로막았다. 재희의 말이 문득 생각났다. 재희도 이 동네 어딘가 산다고 했다. 재희가 소문을 내고 다녔을까.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게 재희가 하는 말에는 유독 주의를 기울였는데 재희는 필요한 말이 아닌 이상 딱히 입을 열지 않았다. 다만 이따금 입을 열 땐, 나에게 그랬듯 대못 같은 말들을 상대방에게 아무렇지 않게 탕탕 박아 넣었다. 재희가 반 아이들에게도 나에게 대해 떠들어댄 건 딱히 없는 듯했다. 내가 서울에서 살다왔다는 걸 아직 모르는 애들도 많았다.

멀리 파란 대문에서 끼익 하는 비명 소리가 났다. 누가 나오는가 싶어, 나도 모르게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다. 바람에 대문이 흔들리고 있었다. 어젯밤 엄마의 말이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다. 비명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근처 어디 산에라도 들어가서 내 안에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남지 않도록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학교보다 집이 더 싫었다. 엄마의 입에서 나올 다음 말들을 듣고 싶지 않았다. 아침에도 엄마와 마주칠까 밥도 안 먹고, 평소보다 십 여분 일찍 집에서 나왔다. 안방에서 출근 준비로 분주한 엄마를 뒤로 하고 부엌에서 나물을 다듬던 할머니에게만 얼른 인사를 하고 나왔다.

엄마는 오래도록 꽃집 점원이었다. 이곳에 이사를 오고 나서도, 아빠 친구의 소개로 근처 화원에 아르바이트를 나가고 있었다. 가게에서 엄마는 꽃다발도 만들고 화분에 꽃도 심었다. 그러다보니 집에도 항상 꽃이 많았다. 서울에서 살 때, 엄마는 이따금 집에 손님들을 초대해 베풀다로 데려갔다. 시들고 병든 화분은 미리 세탁실 안쪽 깊은 곳에 치워두곤 했다. 잘 가꾸진 화분들만 앞에 내놓았다. 사람들로부터 이런 저런 칭찬을 받으며 엄마는 수줍게 웃었다.

화분을 내놓듯, 엄마는 나 역시 사람들 앞에 내놓았다. 나는 낮가림이 심해, 손님들에게도 인사만 겨우 내뱉곤 했다. 그때마다 엄마는 뒤에서 내 등을 꼬집으며 조용히 말했다.

“웃어. 어께 좀 펴고. 씩씩하게, 응?”

그래도 엄마의 손님이니깐 나 역시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했다. 엄마가 제 취향에 맞춰 멋대로 사온 옷도 참고 입고, 교사를 꿈꾼 적이 단 한 번도 없지만 교대를 목표로 공부 중이라는 엄마의 말에도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이제 내 감정, 성격까지 멋대로 주무르려 들었다. 나는 씩씩하지도 웃음이 많지도 않았다. 나는 그냥 조용하고 말이 없는 아이였다. 내가 왜 씩씩하고 웃음이 많은 아이가 되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엄마의 꽃이 아니었다.

열다섯 살 무렵, 어느 때와 같이 손님들이 집에 찾아왔다. 나는 시험공부를 한다는 핑계를 대며, 방문을 걸어 잠갔다. 인사는 해야지, 엄마가 소리치며 내 방문을 두드렸다. 나는 싫다고 소리쳤다. 거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내 목소리를 다 들었을 거였다. 누군가 엄마에게 저 때는 다 그런 거라며, 그냥 내버려두라고 했다. 엄마에게 말대꾸를 시작한 게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그 날 이후 나는 싫다는 말을 밥 먹듯 내뱉었다. 엄마와의 대화가 자꾸만 말다툼이 되어갔다. 그 즈음부터였다. 엄마는 나를 더는 손님들 앞에 내놓지 않았다. 대신 나를 미리 내 방 안쪽 깊은 곳에 치워두곤 했다. 어젯밤 거실 한가운데 서 있던 엄마의 모습이 얼핏 떠올랐다.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 엄마는 나를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이제 엄마에겐 세탁실 안쪽 깊은 곳보다 더욱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곳이 필요할 거였다.

왔던 길을 되돌아 걸었다. 골목길을 돌아 나와 주변을 살폈다. 주머니 속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동네를 빙글빙글 걸었다. 친구 집에서 자고 간다고 문자라도 한 통 남기고 싶지만 휴대전화는 여전히 정지 상태였다. 집에는 못 들어가겠고 집 주변만 계속해서 배회했다. 난생 처음 가보는 길을 무작정 따라 걷다가 가로막혀, 다시 길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기도 했다. 마주치는 가로등마다 나방 떼가 다닥다닥 달라붙어있었다. 이대로 밤새 산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강다리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 환한 불빛이 어른거렸다. 공터 쪽이었다. 가끔 동네 꼬맹이들이 모여 축구를 하거나, 동네 할머니들이 돗자리를 펴고 고추나 나물 같은 것들을 팔리는 곳이었다. 나도 모르게 불빛을 향해 다가갔다. 공터 윗자리 위로 불꽃이 솟구치고 있었다. 얼굴이 보이지 않게 고개를 숙이고, 윗자리에 바싹 붙어 공터 안을 몰래 엿봤다. 남고 교복을 입은 남자애들이 다섯 명, 여고 교복을 입은 여자애들이 두 명이었다. 교복 명찰을 떼고 있어서 몇 학년인지 알 수 없었다. 애들은 불꽃 주변을 맴돌며 자기들끼리 주저리주저리 떠들어댔다. 한 남자애는 뭐가 그렇게 신나는지 자꾸만 펄쩍거리며 뛰었다. 주변에 둘러앉은 애들이 불 속으로 뭔가를 계속해서 던져 넣었다. 종이 뭉치 같은 것이었다. 뭘 태우는 거지, 살펴보는데 문득 그 반대가 아닐까 싶었다. 그냥 불을 피우기 위한 땀감 아닐까.

나는 혹여나 애들에게 들킬까 더욱 몸을 숙였다. 여고 교복을 입은 여자애 중 하나가 재

회와 겹쳐보였다. 재회는 아니었다. 재회와 닮은 듯, 닮지 않았다. 왜 자꾸 재회 생각이 나는 건지 머리가 아팠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다가 앞에 서 있던 운동복 차림의 아주머니와 맞닥뜨렸다. 집 앞 골목길에서 이따금 마주치던 아주머니였다. 나는 뒤로 주춤 물러섰다. 아주머니가 나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울타리 너머를 가리켰다.

“재들이랑 친구니?”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리고는 아주머니를 스쳐 강다리 쪽을 향해 빠르게 걸었다. 아주머니가 집에 안 가고 어딜 가냐고 물었다. 나는 잠시 주춤거리다가 슬쩍 아주머니를 돌아봤다. 오늘 친구 집에서 자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웃했다. 더 이상 돌아다니다간 또 누굴 마주칠지 몰랐다. 강다리를 지나는 내내 땅만 내려다보며 걸었다. 강다리를 지나고 나자 내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학교로 향했다.

교문 앞에 서서 까맣게 불 꺼진, 아무도 없는 빈 학교를 멀거니 올려다봤다. 나는 천천히 운동장을 가로질렀다. 건물 문이 잠겨있었다. 주변을 살피며 1층 창문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복도 쪽 창문은 죄다 잠겨 있었다. 교실 쪽 창문들을 확인하다 5반 교실 앞에서 멈췄다. 창문이 열렸다. 메고 있던 가방을 먼저 안으로 밀어 넣고 조심스레 창틀에 올라탔다. 남의 반 교실에 들어오는 것도, 야밤에 학교에 몰래 들어오는 것도 처음이었다. 창문을 걸어 잠그고 5반을 나와 시커먼 복도 위로 발을 내딛었다. 나는 1반이었다. 1반과 5반은 복도 양 끝에 있었다. 어둠 탓인지, 평소보다 복도가 더욱 멀어보였다. 어둠이 무섭진 않았다. 다만 순찰을 도는 경비 아저씨와 마주치면 어쩌나 싶었다. 교실에 두고 간 게 있어서 잠깐 가지러 왔어요. 아저씨에게 둘러댈 말을 연습했다. 느릿느릿 어둠 속을 걸었다. 학교라는 곳이 이렇게나 조용할 줄 몰랐다. 최대한 조심히 발을 내려놓아도 발소리가 복도 가득 울려 퍼졌다. 가끔 내 발 소리에 혼자 섬뜩 놀라 뒤를 돌아보기도 했다. 교실에 도착하자마자 내 자리 위로 푸욱 쓰러졌다. 휴대전화를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자정이 다 되어갔다.

*

교실 안은 더웠다. 화장실에서 찬 물로 세수를 해도 소용없었다. 결국 교실 창문을 조금 열어두었다. 창문 사이로 새어드는 바람을 맞으며 책상에 엎드려 잠을 청했다. 바람을 타고 풀벌레 우는 소리가 교실 가득 울렸다. 대낮에 들던 매미들의 요란한 울음과는 또 다른 한편의 잔잔한 자장가 같은 울음이었다. 잠깐 잠이 들었다가 멀리 뚜벅거리는 발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복도 쪽 창문 위로 하얀 불빛이 어른거렸다. 경비 아저씨가 복도를 순찰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놀라서 주변을 이리저리 둘러보다, 가방을 끌어안고 냅다 교실 뒤편에 놓인 청소도구함으로 달려갔다. 빗자루들 사이를 비집어 겨우 들어가 조심히 문을 닫았다. 문틈 사이로 바깥이 비스듬히 보였다. 경비 아저씨가 교실 앞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저씨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창가 쪽으로 뚜벅뚜벅 걸어왔다. 경비 아저씨가 움직일 때마다 손전등 불빛이 청소도구함을 훑고 지나갔다. 그때마다 눈이 부셔 나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렸다. 아저씨는 창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는 이내 다시 밖으로 나갔다.

아저씨가 사라지고 난 후에도 나는 한참동안 청소도구함 속에서 나오지 못했다. 문득 지난번 대청소 시간에 청소도구함 속에서 주먹만 한 죽은 나방이 나왔던 게 생각났다. 여자애들이 질겁하며 다들 뒤로 도망쳤다. 몇몇 아이들이 빗자루로 죽은 나방을 툭툭 건드렸다. 나방을 구경한다며 옆 반 애들까지 몇몇 몰려왔다. 나는 아이들 틈에 서서 멍하니 나방을 바라봤다. 나방이 어쩌다가 청소도구함 속에 들어갔는지, 또 어쩌다가 그 안에서 죽게 됐는

지 생각했다. 그때 재희가 나타나 둘둘 만 휴지로 죽은 나방을 덩석 잡아 휴지통에 던져 넣었다. 그리고는 말없이 빗자루를 꺼내 나방이 있던 자리를 쓸었다. 다른 아이들도 눈치를 보다가 저마다 자리로 돌아가 청소를 시작했다. 몇몇은 쓰레기통 주변에까지 모여 내내 나방을 살피었다.

나방이 어찌다가 청소도구함에서 죽어 나왔는지 알 것 같았다. 조금씩 시체가 되어가는 기분이었다. 이대로 잠들었다간 나방처럼 될지 몰랐다. 반 애들은 질겁하며 도망치고 몇몇은 빗자루로 괜히 툭툭 건드릴 거였다. 그리고 재희가 나타날 거였다. 둘둘 만 휴지로 나를 덩석 잡아 휴지통에 던져 넣을 거였다. 청소도구함 문을 활짝 열어 재졌다.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교복을 탁탁 털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대로 시체가 되고 싶진 않았다.

목이 말랐다. 정수기는 5반 앞 복도에 설치되어 있었다. 운동화를 벗고 양말만 신은 채 복도로 나섰다. 발소리가 덜했다. 물통에 물을 채우고 있을 때였다. 뒤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물을 받다말고 천천히 물통 뚜껑을 닫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 옆으로 하얀 팔 하나가 쑥 들어왔다. 나는 옆으로 주춤 물러섰다. 눈이 커다란 단발머리 여자가 컵에 물을 따르고 있었다. 김영지, 나와 같은 빨간색, 1학년 명찰이었다.

“물 먹는 거 처음 봐?”

영지가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영지의 목소리에 놀라 나도 모르게 검지를 입술에 갖다 댔다. 영지가 피식 웃었다.

“경비 아저씨도 지금은 자러 갔을 걸.”

영지의 말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만 반으로 돌아가려는데 영지가 나를 잡아끌었다.

“배고프지 않니?”

내가 고개를 갸웃하자 영지가 같이 매점에 가자고 했다. 분명 문이 잠겨있는데 무슨 소릴 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열결에 영지와 함께 식당으로 가는 복도를 따라 걸었다. 중간에 매점이 있었다. 영지는 나를 매점 뒤쪽으로 끌고 갔다. 플라스틱 우유 상자가 벽면 가득 줄줄이 세워져 있었다. 영지가 우유 상자를 하나씩 꺼내 옆으로 치우며 나한테도 보고만 있지 말고 도우라고 했다. 영지를 따라 우유 상자 두 줄을 다 치웠다. 그러자 벽면 아래쪽에서 자그마한 창고 문이 나타났다. 영지는 주머니에서 실핀을 꺼내 문손잡이 구멍을 한참 쑤셨다. 그러더니 대뜸 내게 가까이 와보라고 했다. 영지는 내 머리통을 가만 들여다보니 내 머리에 꽂혀있던 실 핀 하나를 뽑았다. 머리카락도 같이 한 올 뽑혔는지 따끔했다. 내가 눈살을 찌푸리자 영지가 키득거리며 웃었다. 영지가 내게서 얻은 실 핀으로 문손잡이 구멍 안쪽을 쿡 찌르자 문이 덜컥 열렸다.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영지와 매점에서 컵라면을 하나씩 끓여 먹었다. 사이다도 하나씩 꺼내 마셨다. 먹는 동안 앞머리가 자꾸 흘러내려 영지에게 실 핀을 돌려 달라고 했다. 영지가 나를 숙 보더니 내 앞머리를 옆으로 살짝 넘겼다.

“너는 내리는 게 더 나아.”

나는 괜히 어색해서 앞머리를 가만히 만졌다. 영지가 실 핀을 자기 앞머리에 꽂았다.

“어때?”

나는 가만히 영지의 여드름 난 이마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다.

“이상해.”

영지가 깔깔거리며 웃었다. 우린 가릴수록 예뻐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영지와 나는 주머니에 있던 잔돈을 모두 털어 계산대 위에 올려두었다. 500원 정도가 모

자랐다. 각자 나중에 250원씩 매점에 갚기로 서로의 양심을 걸고 약속했다. 먹은 자리를 다 치우고 우리는 매점을 나왔다. 창고 문을 안에서 먼저 버튼을 눌러 잠근 뒤, 세계 문을 닫았다. 그리고는 다시 우유 상자를 원래 있던 모양대로 벽면에 세웠다. 정말 감쪽같았다.

영지와 나는 각자의 자기 반에서 칫솔과 치약을 챙겨 복도 중간 화장실에서 만나기로 했다. 칫솔을 들고 화장실을 향해 걷는데 저 멀리 영지가 성큼성큼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슬리퍼를 신고 있는 영지와 달리 나는 양말만 신고 있었다. 그런데도 복도 가득 울리는 것은 내 발소리였다. 나는 천천히 입 안에 고인 침을 삼켰다.

양치와 세수를 마치고 우리는 보건실로 향했다. 보건실 문은 번호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영지는 보건실 청소 당번이었다. 청소를 하다가 자물쇠에 번호가 눌러 있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고 했다. 2568. 영지가 내게 자물쇠 번호를 알려주었다. 나같 땀 꼭 다시 자물쇠를 잠가야 한다고 했다.

나는 복도 쪽 침대에 눕고 영지는 창가 쪽 침대에 누웠다. 휴대전화 알람을 오전 6시로 맞춰뒀다. 배터리가 10퍼센트밖에 남지 않아 조금 걱정이었다. 영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영지는 창가 쪽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창밖은 환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밤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환한 밤 사이로 나방들이 훨훨 날아다니고 있었다. 영지가 왜 나방들이 가로등 불빛으로 모여드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나방 습성이잖아.”

영지가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길을 찾고 있는거야. 원래 달빛을 쫓아가고 있었는데 가로등 불빛이 자꾸 밝아지면서 길을 잃고 만 거야. 다시 달빛을 쫓아 해매다가 결국 가로등 불빛을 달빛으로 착각하고 저렇게 되어 버렸지.”

“다시 달빛을 찾을 수 있을까?”

“사실 찾을 수 없지. 가로등 불빛이 꺼질 일도 없겠지만 애초에 달빛이라는 건 찾을 수 없어. 그냥 계속 찾아가는 거지.”

눈을 감자 환한 불꽃이 일었다. 종이 뭉치 같은 것이 타고 있었다. 아니, 그건 그냥 땀감에 불과했다. 종이들에 적힌 글자들이 재가 되어 풀풀 날렸다. 불꽃 주변으로 커다란 나방들이 무리지어 날아다녔다. 자기들끼리 주저리주저리 떠들어대며, 뭐가 그리 신나는지 펄쩍 뛰어오르며 주변을 맴돌았다. 그 순간 무리 중 하나가 튕겨 나와 유리창에 부딪히며 떨어졌다. 창문에 나방의 잿빛 비늘가루가 묻어났다. 나방이 바닥에 떨어져있다가 겨우 몸을 일으켜 다시 날개를 퍼덕였다. 날갯짓은 어둠 속을 헤집고 불 꺼진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를 지나 교실로 들어가, 더욱 눈에 띄지 않는 안쪽 깊은 곳을 찾아, 그렇게 청소도구함 속으로 숨어들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아침 햇살이 눈을 찔렀다. 마른세수를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영지가 보이지 않았다. 보건실을 나와 영지가 말해준대로 다시 자물쇠를 잠갔다. 교실로 돌아가는 길, 영지를 처음 만났던 5반 교실에 잠깐 들렀다. 교실을 죽 둘러보는데 창문 하나가 열려 있었다. 창문 사이로 아침 바람이 불어왔다. 바람 사이로 아직 가시지 않은 밤의 냄새가 풍겼다.

*

종례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담임 선생님이 나를 복도로 불러냈다. 엄마와 통화

를 했다고 했다. 엄마가 오늘은 야자를 쉬고 일찍 집으로 보내달라고 한 모양이었다. 교문을 나서자 배달 트럭 한 대가 눈에 띄었다. 트럭에는 장례식 화환이 실려 있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트럭에서 경적 소리가 났다. 운전석에 엄마가 앉아있었다. 항상 자리에 다소 꽃이 앉아 꽃꽂이를 하는 엄마만 보다가, 손에 목장갑을 끼고 커다란 트럭을 몰고 있는 엄마를 보자 조금 당황스러웠다. 차에 오르자 엄마가 소탈하게 웃었다.

“엄마 일하는 모습은 처음 보지?”

시골엔 길에도 널린 게 꽃이라 아무도 화원에 꽃을 사러 오지 않는됐다. 대신 근처에 요양원이 많은 만큼 장례식 장이 많고, 장례가 많은 만큼 장례식 화환 주문도 많다고 했다. 지금은 식당에 배달했던 화환을 회수해서 돌아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와 나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다. 엄마가 옆집 아줌마 애길 꺼냈다. 옆집 아줌마는 어젯밤 공터에서 나와 마주친 뒤 그길로 곧장 엄마에게 달려간 모양이었다.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그랬다면서?”

나는 아무런 대답도 못했다. 엄마가 옆으로 흘러내린 내 앞머리를 귀 뒤로 넘겨주었다. 엄마가 나를 물끄러미 봤다. 엄마와 눈 마주치기가 어려웠다. 친구 집에서 자고 왔어요. 엄마에게 말을 둘러대려는데 문득 재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자꾸 거짓말 하는데? 숨을 꼭 눌러 참았다.

“친구 집에서..... 자고 왔어요.”

엄마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불장난 하는 애들이랑은 아무 상관없는 거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다행이라며 차에 시동을 걸었다. 운전을 하는 내내 엄마는 코를 훌쩍였다. 오늘따라 유독 차가 빨간 불에 자꾸 걸려 평소보다 더디게 달렸다. 강다리를 지나가는 사이 머릿속이, 내가 혼자 급식 먹는 것을 엄마가 어떻게 알았을지 대한 의문으로 가득 차올랐다. 다리를 건너자마자 또 신호에 걸렸다. 엄마는 운전대를 잡고 뚫어져라 빨간 불을 바라봤다. 엄마의 옆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천천히 입을 뗐다.

“제가 급식 혼자 먹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엄마는 나를 돌아다보지 못했다.

“혹시 그 옆집 아줌마가 얘기해줬어요?”

엄마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담임이 얘기했어요?”

엄마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누가 얘기해주고 그런 거 아냐.”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숨도 떨리기 시작했다. 누가 얘기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니. 나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그때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다. 엄마는 계속 신호등을 쳐다보고 있었으면서도 신호가 파란불로 바뀐 걸 몰랐다. 엄마는 부랴부랴 엑셀을 밟았다. 그러더니 근처 갓길에 차를 세웠다.

엄마가 나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이틀 만에야 마주친 엄마의 두 눈이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켜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다. 엄마가 학교에 갔다고 했다. 꽃 배달이 있어서. 주차장이 급식실 뒤에 있어서 그 쪽을 지나가고 있는데 마침, 점심시간이라 아이들이 몰려나오는 것을 봤다고 했다. 엄마는 나를 잠깐이라도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차에 앉아 급식실에서 나오는 아이들을 하나 둘 눈여겨봤더라.

엄마가 나를 보았다. 혼자 땅만 내려다보며 걸어 나오는 아이를 보았다. 엄마가 말을 멈추었다. 엄마는 몇 번 숨을 고른 뒤 내게 불현 듯 미안하다고 했다.

“너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

엄마의 켤한 두 눈동자를 보며, 엄마가 뜬 눈으로 지새웠을 지난밤을 떠올렸다. 엄마가 나의 지난밤을 알지 못하듯, 나 역시 엄마의 지난밤을 알지 못했다. 엄마의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기도 했다. 나는 엄마의 시간들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혼자 걸어 들어가는 나의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봐야 했던 엄마의 시간, 홀로 거실에 우두커니 서서 고민하다 내게 급식 혼자 먹느냐고 겨우 말을 걸었던 엄마의 시간. 나는 그저 항상 내 방 깊숙이 숨어들기 바빴다. 엄마의 시간들과 제대로 마주하려 들지 않았다.

엄마가 내 두 손을 꼭 잡았다. 내 얘기가 듣고 싶다고 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나의 시간들에 대해 알고 싶다고 했다. 나는 엄마의 두 눈을 바로 응시했다. 머리가 아프고 숨이 막히고 배가 아팠다. 에어컨 바람 때문에 오히려 추운데, 이마에선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밤새 혼자 학교에 있었던 시간, 아니, 영지와 함께 보냈던 시간을 떠올렸다. 매점에 500원을 갚아야 하는 일, 앞머리를 내리는 게 더 예쁘다고 했던 말, 보건실 자물쇠 비밀번호가 2568인 것. 코끝이 찡하면서도 이상하게 웃음이 났다.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엄마의 눈동자를 바라봤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 순간, 혀 밑에 숨어있던 나방 한 마리가 포르르 날갯짓을 하며 뛰어나왔다. 나방이 날개를 파닥이며 차 안을 이리저리 헤집어댔다. 놀란 엄마가 차창을 재빨리 내렸다. 나방이 운전석 창문 너머로 훨훨 날아올랐다. 갓길 옆에 서있는 가로등에 마침 불이 반짝 들어왔다. 주변이 온통 주홍빛으로 물들었다. 나방이 가로등 불빛 주변을 천천히 맴돌았다. 더없이 퍼덕거리는 날갯짓으로 그렇게 환한 밤을 맞이하고 있었다.